

지역 소식통

김제시, 영양플러스 대상자 모집

김제시 보건소는 1일부터 10일까지 영양플러스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취약계층 임신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대상은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0%미만의 김제시 거주자 중 임신부 또는 66개월 미만의 영유아라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여야 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상자의 식생활에서 부족한 영양소 보충을 위해 쌀, 분유, 우유 등 9가지 보충식품을 6가지 패키지로 제공한다.

또 건강한 식생활 유지방법 및 다양한 영양교육과 함께 정기적인 영양상태 개선 평가도 진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산모수첩 등 해당서류를 갖춰 김제시보건소 영양실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 2018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20일까지 받아

정읍시가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을 받는다.

주요사업은 식량 10개, 원예·식목 17개, 임업과 산촌야 8개, 농촌개발 24개, 축산 9개 분야다.

시는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신청을 받고 있다"며 "2018년도에 정부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 등에서는 신청 분야별 지원 자격과 요건을 면밀히 확인한 후 관련 부서나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업내용과 신청 요령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fa.go.kr)나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농업인 소득지원금 용자 지원 15일까지 신청 접수

정읍시가 올해 8억원의 주민소득지원기금을 농업인에게 용자 지원한다.

시는 "농업인의 소득 수준 향상과 소득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주민소득지원기금 용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며 "정읍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구주에게 운영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조건은 가구 당 2,000만원 이내로 용자하며 2년 까지 4년 구분 상환이다.

용자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 신용 조사를 갖춰 2월 15일까지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 성덕면, 경로당 현장행정

김제시 성덕면은 새해를 맞아 마을 사랑방인 경로당 26개소(그룹-홀에서 마을주민과 직접 만나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읍촌리드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실시했다.

이번 경로당 방문은 농한기 주민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를 맞추어 직접 현장을 찾아감으로써 주민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직접 챙겨 해소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면정에 반영한다는 취지이다.

또한 주민들의 민원과 건의사항에 대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답을 찾고 그룹-홀을 점검하여 이용자 간의 갈등이 있을 경우 서로 소통을 통해 해결하도록 유도하였으며, 겨울철 화재 및 경로당 안전사고 예방, 변경 운영비 지원내용 등을 설명하였다.

간담회 결과 농로포장, 경로당 개보수 사업, 반사경설치, 아스콘 덧씌우기, 과속방지턱 설치 등 무려 110여건의 건의사항이 수렴되었다.

각 마을별로 수렴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장·단기별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해결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도 주민들에게 직접 알려주어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위도 주민들이 마을의 안녕과 풍어(豊魚)를 기원하는 부안 위도 띠벳놀이 공개행사가 정월 초사흘날인 지난 30일 부안군 위도면 대리마을에서 열렸다.

“마을의 평안과 풍어 기원”

부안 위도 띠벳놀이 공개행사, 대리마을서 열려

170여년 전부터 위도 주민들이 마을의 안녕과 풍어(豊魚)를 기원하는 부안 위도 띠벳놀이 공개행사가 정월 초사흘날인 지난 30일 부안군 위도면 대리마을에서 열렸다.

이른 아침 대리마을 풍물패의 띠벳국(오방진 국, 풍년 국)과 함께 동편 당산제를 올리고 당젓봉 정상에 올라(소원을 비는 곳)에 올라 제물을 진설하면서 시작되었다.

원당에 오른 화주 김상원·이종순 씨의 독축을 시작으로 무너 안병희 씨의 산신 국, 성주국, 손님국, 지신 국, 서낭국, 깃 국 등 무탈과 풍어를 기원하는 국이 풍물패의 농악과 함께 진행되었다.

원당에서 국과 제사를 지낸 뒤 마을을 한 바퀴 돌고 바다가 보이는 마을 앞 부두에 도착하게 되며

이 때 원당에 오르지 않은 마을 주민들은 띠배와 제웅(허수아비)을 만들게 된다.

띠배는 띠풀과 짚, 싸리나무 등을 함께 엮어 길이 3m, 폭 2m 정도의 크기로 만들고 동·서·남·북·중앙 등 5방위의 재액을 상징하는 오색기, 꽃대, 닭을 만들어 달아 배 형태를 갖추고 띠배에 주민들의 소원문도 가득 담는다.

이후 마을의 중심이 되는 주산을 중심으로 동편 용왕 밥 던지기, 동편 당산제, 복편 주산 신령제, 서편 당산제, 용왕 밥 던지기, 우물 국 등을 하며 주산 돌기를 마친 뒤 마을 앞 부두에 도착, 용왕국을 하며

신명나 환판을 벌인다. 용왕국을 마친 뒤 띠배는 모선이

연결해 서해 먼 바다로 띄워 보내는데 이 때 농악에 맞춰 술배소리, 예용소리, 가래질소리 등 띠배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신명나는 국판을 벌인다.

모선이 바다 가운데서 띠배를 띄어 놓고 돌아오면 위도 띠벳놀이 공식행사는 마무리되고 행사를 마친 주민들은 단합과 화합을 다지며 여유를 즐기는 대풍놀이가 밤새도록 이어진다.

장영수 위도 띠벳놀이 보존회장은 "띠벳놀이는 액을 띠배에 띄워 멀리 보내고 마을의 평안과 풍어를 기원하는 우리 민족의 열과 혼이 함께 하는 전통문화행사"라며 "위도를 찾는 관광객과 주민이 어우러져 나눔과 화합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귀성객들에게 따뜻한 차한잔

지평선 봉사대, 설명절 4일 동안 김제역에서 차봉사

김제시 지평선 봉사대(회장 김정화)는 명절마다 고향을 찾는 이들에게 따뜻한 차한잔에 사랑을 담아 전하는 아름다운 차봉사를 올 설에도 어김없이 추진하였다.

김제시 지평선 봉사대는 13년간 25번째, 명절마다 김제역에서 차봉사를 하고 있어 기차에서 내려 대합실에 들어설 때면 달콤한 진통차와 커피의 향기로온 조화 속에 고향의 반가움을 더해 준다.

40여명으로 구성된 지평선 봉사대는 설명절 4일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귀성객 차대접을 하면서 시종 즐거운 마음으로 웃음꽃이 피어났다. 마을 속에 우러나는 봉사로서 그런지 추운날씨인데도 불구하고 하루

10여명의 봉사자들이 꾸준한 봉사를 실시했다.

차종류가 다양해서 마시는 이들에게도 선택의 만족감도 주지만, 고향을 왔다 갈 때 따뜻한 차한잔으로 고향의 그리움이 마음 속에 긴 여운으로 남아 있다고 많은 이들이 고마움을 전하였다.

또한 시장권한대행 이승복 부시장은 이들을 찾아 위로 격려하며 추운 설명절 고향을 방문하는 가족들에게 따뜻한 어머니 같은 포근한 김제시민들의 사랑을 전해준 것 같다고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김제역에 근무하는 직원들까지 챙겨 위로 격려하는 섬세함으로 훈훈한 설명절을 보내게 되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2월 '인생은 도전의 연속' 테마 강연

김제지평선아카데미, 2일 '결핍이 곧 에너지다' 등 열어

매주 운영 중인 김제지평선아카데미가 2월에는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기에 늘 도전하는 자세로 삶을 살아가자는 의미를 담아 '인생은 도전의 연속'이라는 테마로 알찬 강연을 준비했다.

2월의 첫 강연인 2일(제498회)에는 맹명관 중소기업혁신전략연구소 전임교수를 초청 '결핍이 곧 에너지다'라는 주제로 꿈과 희망마저 사치스럽다고 느낄 정도로 척박해진 이 시대에 결핍을 어떻게 긍정의 에너지로 바꾸는지와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는 패자부활의 전략 결핍에너지에 대한 강연을 한다.

9일(제499회)에는 이광재 한국대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을 초청, '대니페스토의 중요성과 실천'이라는 주제로 대니페스토에 대한 이해를 넓혀 공약 이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공약 추진에 도움을 주는 대니페스토의

실천 방안에 대한 강연을 마련했다.

16일에는 500회를 맞이하여 최진석 서강대학교 교수를 초청 '자신의 주인공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과정 속에서 주인공으로 살고 있는지와 자기 자신을 위한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계기가 될 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했다.

2월의 마지막 강연인 23일(501회)에는 권도형 한국은퇴설계연구소 대표를 초청하여 '은퇴 후 우리 삶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돈 문제와 더불어 건강, 시간, 소통, 경력 등을 자선으로 규정하고 전인적 은퇴자관리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현명하게 은퇴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강연을 한다.

또한 이날은 광활면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지평선아카데미 체험의 날'로 광활면 주민자치센터 농약교실의 흥겨운 식전공연도 함께 진행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삼오기술사 박종근 대표, 가정위탁세대 위해 정읍 연지동에 120만원 기탁

(유)삼오기술사 박종근 대표(56)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 120만원을 정읍시 연지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

박 대표는 "부모들의 가정 해체로 불가피하게 조부모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정위탁세대(조손가정 / 소년·소녀가장세대) 어린이들에게 성금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주민센터에서는 박 대표의 뜻에 따라 기탁 성금을 가정위탁세대인 갑대 한 학생 등 모두 3가구에 세대 당 40만원씩 전달했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박 대표는 10여년 전부터 연지동을 비롯 정읍지역 5개 동(연지동, 수성동, 장명동, 시기동, 초산동) 매달 10만원씩을 기부하

며 불우이웃돕기를 실천해 오고 있다"며 "이번에 가정위탁세대에 전달한 성금은 그간 박 대표가 기탁한 성금을 모은 것이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그간에도 수재민과 이웃돕기 성금, 시민장학금, 서울장학숙 건립 기금 기탁 등 다방면에 걸쳐 성금을 기탁해 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제이앤제이그래픽



간판, 현수막, 표찰, 현황판, 실사출력전문, 안전용품, 가구, 커튼, 차량랩핑

Tel. 063-633-1201
Fax. 063-633-1203
e-mail . 6331201@hanmail.net